

노동아카이브의 형성과 발전방향 모색*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의
‘참여형 아카이브’ 시도를 중심으로

이 종 구** · 이 재 성***

1. 서론
2. 성공회대 노동아카이브 형성과 기록물 생산
 - 1) 첫 번째 시기 : 전태일노동자자료연구실 자료 이관과 노동사연구소 설립
 - 2) 두 번째 시기 : 대규모 노동사 구술아카이브 구축
 - 3) 현재 : ‘로컬’의 기록화와 노동연구 결합 모색
3. 노동아카이브 구축과 ‘로컬리티 기록화’
 - 1) 노동아카이브의 방법론적 도약 : 노동사 내부의 ‘중층적 주변화’ 극복
 - 2) 반도상사 민주노조의 역사와 한순임
 - 3) 기록 생산과 활용의 괴리 :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사례
4. 참여형 노동아카이브의 구축 시도: 대한마이크로 노조의 사례
 - 1) 집단구술기록 생산과 재현의 딜레마
 - 2) 참여의 주체 형성 : 대한마이크로 노조사 편집위원회
5. 결론

* 이 글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지원(SSK) 사업을 통해 수행된 연구논문입니다(NRF-2013S1A3A2054223).

** 성공회대노동사연구소 책임소장,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주요 논저 : 『디지털 시대의 구로공단』(공저), 한국학술정보, 2012; 『디지털 시대의 노동자들』(공저), 한국학술정보, 2013.

*** 성공회대노동사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요 논저 : 『지역사회운동과 로컬리티 : 1980년대 인천의 노동운동과 문화운동』, DETO, 2014.

▪투고일 : 2014년 6월 30일 ▪최초심사일 : 2014년 7월 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7월 22일.

[국문초록]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는 2001년 당시 전태일노동자료실의 소장 기록물이 성공회대에 기탁되는 것을 계기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구술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노동아카이브와 노동연구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노동기록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새롭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기록의 생산자(구술증언자)들의 불만족이었다. 기록의 이용자(연구자)들 측면에서도 연구자들이 기록을 고정된 해석의 프레임에 맞추거나, 자신의 해석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인천지역의 동일방직, 반도상사, 대한마이크로 등 노동조합 사례와 구로동맹파업의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기록의 생산과 활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역사적 기록에 ‘승리자’로 남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부당하게 ‘실패자’로 낙인찍히는 ‘중층적 주변화’ 현상이 발생해 왔다.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은 매우 제한적일 뿐이고, 시민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기억투쟁’이 원활하게 해결되어 나갈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노동아카이브가 지역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참여형 노동아카이브의 구축을 통해서 기록 생산과 활용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참여의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의 구체적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로컬과 로컬리티 연구는 비단 물리적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중적 스케일’(multi-scalar) 접근 방법을 요청한다. 대안적인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은 기존의 노

동아카이브가 해결해야 하는 기록 생산과 활용 사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노동아카이브, 참여형 아카이브, 로컬리티 기록화, 다중 스케일 접근법, 로컬리티 인프라,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1. 서론

2000년을 전후로 한국에 전문 노동아카이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성공회대 노동아카이브는 전태일노동자료연구실의 자료를 그대로 이어 받으면서 2001년에 설립되었고, 이를 토대로 3년(2002~2005년)에 걸친 구술사 연구를 진행하여 1960~70년대 노동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과 연구성과를 생산하였다. 성공회대 사례는 노동아카이브와 노동연구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고 구술사 방법론은 노동자들을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력자’로 격상시키는 특징 때문에 많은 노동연구자들에게 수용되었다.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구술조사의 결과는 다시 노동아카이브에 축적되면서 기록의 생산과 활용의 선순환 관계가 원활히 형성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성공회대 노동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구술사 방법론을 도입한 노동아카이브들은 기록의 생산과 활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구술사 방법론이 구술자(기록생산자)를 대상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자(기록활용자)는 구술기록을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구술기록의 생산과 활용이 결과적으로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역사적 발언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역시 충족되지 않았다.¹⁾ 구술사 연구는 기록의 생산자와 이용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본적으로 양자의 관계에 단절이 있다는 지적은 앞으로 노동아카이브와 노동연구자들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일차적인 해결책은 노동아카이브의 역할을 노동자들의 미시적 생활사 기록이 축적되는 저장소로 규정하는 것이다. '20세기민중생활사아카이브'는 공적인 역사와 사적인 역사의 날카로운 구별을 반대하고, 개인성 내지 개체성에 대한 인정과 강조를 통해서 구술자들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²⁾ 그렇지만 노동아카이브는 미시사와 생활사만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사, 지역의 역사, 단체의 역사 등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기록 생산과 활용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기록 생산의 당사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노동아카이브에 구술증언이 축적이 되고, 그 증언들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제공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면서 역설적으로 기록의 생산자와 활용자 사이의 불협화음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신순애는 1970년대 평화시장에서 '7번 시다'로 시작하여 '1번 미싱사'로 불리다, 노동운동가로 성장해 간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집필했고(성공회대 NGO대학원), 이를 『열세 살 여공의 삶: 한 여성노동자의 자기역사 쓰기』(2014, 한겨레출판)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그는 전순옥의 『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2004, 한겨레신문사)와 김원의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2006) 등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평하면서, 그 연구들 안에서는 정작 '시다의 경험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잊혀진 노동자들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³⁾

1) 김준, 2011, 「노동사 연구와 구술자료」, 〈비판사회학대회 제11세션 '구술연구 20년, 한계와 방법론적 모색'〉 발표문(10월 21일).

2) 함한희, 2009, 「구술아카이브 자료의 활용에 관한 제언: 20세기민중생활사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전국기록인대회 제1회 '기록관리, 내일을 연다!'〉, 발표문(11월 27~28일).

신순애의 사례는 노동아카이브가 당면한 해결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생생한 체험내용을 중시한다는 장점을 가진 ‘구술사’ 연구조차도 종종 연구자와 구술자 사이에서 권력의 불균형성이 드러나게 된다. 구술자의 한계는 논외로 하더라도, 구술자의 증언을 해석할 능력의 부족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 등은 연구자의 글 속에서 감춰지기 쉽다. 구술자는 연구자로 인해서 ‘대상화’될 수밖에 없기에 구술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역시 피하기 어렵다.⁴⁾ 게다가 전문 연구자들이라면 자신의 논문에 대해 비판과 반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논문이나 저서에 대해 불만을 갖고 비판을 하고 싶은 비전문가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

만약에 노동아카이브의 구축과정 자체가 기록 생산과 활용의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아니, 사실상 기록생산과 활용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록생산과 노동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인데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방안은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참여형 아카이브는 기록의 생산과 활용의 측면에서 구술사 연구 방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의 수집, 축적, 관리에 “자기 공동체를 기록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가 담긴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인 ‘시민 아키비스트’가 연구자의 ‘외부자 시각’에 의해 규정당하지 않는 능동적인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다.⁵⁾

하지만 ‘참여’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 공동체들이 직접 자신들의 기억과 기록을 직접 아카이빙한다고 했을 때 그 ‘참여’의 내용과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이냐는 의문이 여전히

3) 신순애, 2012, 「13살 여공의 삶」,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쪽.

4) Acker et al., 1983, “Objectivity and Truth: Problems in Doing Feminist Research,” *Women’s Studies Int. Forum*, 6(4), p.431.

5) 실문원, 2010,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 한국기록학회, 18쪽.

남는다. 어쩌면 이 부분이야말로 ‘외부자’이자 ‘전문가’인 학계의 연구자들의 역할로 남겨진 부분일지도 모른다.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기록의 생산과 활용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그 설계와 진행, 그리고 최종적인 아카이브 구축의 완성에는 반드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연구자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채워져야 한다. ‘시민 아키비스트’들 역시 기록 생산과 활용의 난제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노동자들 스스로 만들어간 지역 노동사와 스토리텔링 안에서도 특정 기록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한 쪽의 해석을 특권화하고, 다른 편의 기억과 역사를 주변화(marginalization)시키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왔다. 이 글의 본문에서도 몇 가지 사례를 다루고 있듯이 ‘참여’라는 방법 자체만으로 대안적인 아카이빙 전략이 완성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로컬리티’(locality) 이론을 통해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구축의 방법론적인 정립을 시도해 보려 하였다.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하고, 선택하고, 분류하고, 재구성하여, 보다 통합적인 이야기(또는 역사)로 만드는 과정은 ‘중심’과 ‘주변’, ‘보편’과 ‘특수’를 형성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주변’과 ‘로컬’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 그 자체만을 지칭하거나,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공간적 메타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 스케일’(multi-scalar approach) 관점을 통해서 기록의 생산과 활용의 복잡한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적 지침을 제공하는 이론적 개념이 되어줄 수 있다.⁶⁾ 사회적 현상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구성물임을 감안할 때, 아카이브의 구축이 특정 기록 대상의 사회적 맥락과 주체들 간의 관계 자체를 가능한

6) Bae Gyoon Park, 2005, “Globalization and Local Political Economy: The Multi-Scalar Approach,” *Global Economic Review*, Vol. 34, No 4.

온전히 반영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존 노동아카이브는 기록생산과 기록활용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성공회대 노동아카이브는 이를 ‘참여형 노동아카이브’의 구축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이 방법론을 ‘로컬리티’라는 이론적 개념과 연관시킴으로써 기록화 전략의 이론적 측면을 완성할 것이다. ‘로컬리티 기록화’론은 기존 노동사 연구자들에게 ‘역사적 진실’의 규명이라는 ‘불가능한 미션’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부연하자면,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볼 때 집단과 지역 안에 ‘하나의 역사, 하나의 정체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 다양한 주제와 집단들이 생산하는 기억과 기억의 재현물들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것이며 연구자가 ‘역사적 진실’을 구성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정체성과 대립하는 기억들의 존재는 집단과 지역의 로컬리티 존재 양상 안에서 회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저마다의 이야기들 속에서 단절되어 살아갈 수는 없는만큼, 성숙하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집단적 기억을 다루고, 상반된 정체성 등 사회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갈 수 있는 ‘로컬리티 인프라’(locality infra)는 반드시 필요하다.⁷⁾ ‘참여형 (노동)아카이브’는 우리 사회에 다층적 정체성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성공회대 노동아카이브 형성과 기록물 생산

노동연구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식인에게 금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분단, 전쟁, 장기 군사정권으로 이어지는 해방 이후의 현대사는

7) 최재희, 「영국의 마이너리티 역사교육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확대 연구」, 『기록학연구』, 제36호, 121-152쪽.

학계의 노동연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환경이 되었다. 국가 주도의 노동통제는 노동운동에 대한 자료 축적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실물 자료를 남기지 않으려했으며 결과적으로 관변 측의 공식 기록만이 남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87년 6월의 시민항쟁과 그 직후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운동은 급격하게 고조되었다. 그러나 노사 어느 쪽을 막론하고 연구자들은 실용적 해법 모색을 위한 작업에 열중하였으며 자료 축적이나 장기적인 시야에 입각한 기초적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자체가 빈약하였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상징하는 노사관계의 제도화는 격동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연구자들도 노동통제와 변혁적 노동운동 이외의 광범위한 주제를 가진 노동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산업화 초기의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자의 생활세계 등을 포함한 노동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들은 노사관계 제도, 노동시장, 노동조합, 노무관리 등과 같은 가시적 현상에 대한 거시적 연구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애사, 일상사, 생활세계와 같은 주관적 체험 속에 남아 있는 미시적 사건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는 선진국에서 진행된 노동자의 생활세계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노동연구로부터 받은 영향이기도 했다.

성공시대 노동사연구소는 이상과 같은 맥락 위에서 1950년대 이후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의 노동사 연구를 진행하여 오고 있었다. 성공시대 노동아카이브 구축의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전태일노동자료연구실'의 자료가 기증되고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 연구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시기이다(2001년~2002년). 두 번째 시기는 본격적으로 구술자료 생산과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기록의 활용(연구)이 진행된 시기이다(2002년~2012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는 2013년 이후 한국사회과학(SSK) 지원사업 제2단계에 진입하면서 부산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로컬리티’ 연구팀과 하나의 연구단을 구성하면서 ‘산업변동과 로컬리티 기억의 재현’이라는 연구과제로 기록의 생산과 기록화 전략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1) 첫 번째 시기 : 전태일노동자료연구실 자료 이관과 노동사연구소 설립

성공회대 노동아카이브의 가장 큰 원천은 노동정치의 격동 속에서 폐쇄된 전태일노동자료연구실이다. 이 연구실은 1990년 11월 13일 전태일 20주기에 즈음하여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로 설립되었다. 연구실을 창립한 사람들은 1987년 11월 13일에 (역시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로 창립한) 구로노동상담소 간사들과 구로동의 학생 출신 현장 활동가들이었다. 전태일노동자료연구실을 함께 설립했던 인사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노동조합운동을 바탕으로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인 노동운동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동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노동운동의 체계화, 과학화를 지향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전태일노동자료연구실의 활동가들은 1992년에 구소련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사회변혁이라는 목표를 상실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다. 연구실을 운영하던 주체 중 한 사람이었던 박승옥은 1톤 트럭으로 2대 분량의 자료를 10여 년 동안 양평에서 경기도 여주로 그리고 경북 김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버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그러다 마침내 이 자료들을 2001년 초에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에 기탁하였다.⁸⁾

8) 당시 기탁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 자료총서』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한국학술정보(주)와 노동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작한 자료총서의 분량은 약 30만 쪽에 달한다. 2014년 초부터 각 권 600여 쪽 분량으로 나누어 차례로 출간되고

전태일노동자자료연구실의 자료를 기탁받은 성공회대는 노동사연구소를 조직하였으며 노동부와 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1960~1970년대의 한국노동운동사를 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연구는 전태일노동자자료연구실의 문헌자료와 함께 1970년대 노동운동에 참가했던 일선 활동가들을 인터뷰한 구술자료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2002년 8월에 정식으로 노동사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이 과정은 연구자와 활동가의 생산적인 협업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노동아카이브가 연구소 설립을 이끌어 낸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2) 두 번째 시기 : 대규모 노동사 구술아카이브 구축

노동사연구소는 지금까지의 노동사 연구가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조직, 노선, 이념과 실천에 초점을 맞춘 지도부 중심의 역사이거나 혹은 계급분석과 같은 사회구조론적 분석과 제도사적 접근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사 연구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노동사연구소는 2002년 전반기에는 노동부의 지원으로 예비 조사의 성격을 가진 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선행 사례가 없으므로 1920년대부터 활동해 온 세계적인 노동사 자료센터인 일본 호세이(法政)대학의 오하라(大原)사회문제연구소 및 1945년 이후 일본 노동운동 지도자의 기록을 수집 정리하고 있는 일본노동연구기구를 견학하고 기법을 조사하였다.

있으며 2014년 말까지 약 700권 분량으로 발간이 완료될 예정이다. 노동사 총서는 1980년대~1890년대 사이 전개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상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노동운동 관련 1차 자료인 각종 유인물, 회의록, 보고서, 책자, 노동조합 일상활동 자료, 소식지, 메모, 편지 등을 망라하고 있다. 기획 기간 3년, 자료 영인 및 분류 기간 2년을 거쳐 보정된 노동사 총서는 국내 노동사 관련 자료 중 가장 방대한 실물 자료를 한곳에 모은 것으로 노동현장 및 활동내용의 생생한 장면을 여실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첫째, 산업노동자의 기원과 형성이라는 주제 하에 생활사 연구를 추진하고 둘째, 연구과정에서 360여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을 실시하여 구술 DB를 구축했으며 셋째, 노동조합회의록, 사업 보고서, 노보는 물론 노동자들의 수기, 유인물을 비롯한 각종 관련 자료 및 물건을 수집하여 노동사 자료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생산된 구술증언 음성파일과 녹취문은 노동아카이브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구술자료들을 활용하여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형성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연구했다. 이 연구의 성과로 노동사 연구총서 6권이 출간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다수의 구술증언과 함께 대한조선공사 노조, 철도 노조 자료를 비롯한 다수의 귀중한 문헌 자료를 추가로 입수하였다.

2002년부터 3년간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에는 “방송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 조사연구”(2006)와 “방송산업에서의 비정규 연출인력의 규모와 역할 연구”(2008), “방송산업 비정규 연출자의 작업환경과 생활세계 연구”(2009) 등 당대의 문화산업 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으며, 동시에 “1950년대 노동자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2006~2008), 그리고 “이주민의 에스니시티와 거주지역 분석”(2009) 등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동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2010년부터 3년간 진행한 SSK 1단계 연구에서는 구로지역의 산업과 노동을 연구하였다. 여기서부터 노동사연구소는 특정 ‘지역’ 생활세계와 ‘복잡한 정체성’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기 시작했다. 오늘날 산업단지 지역에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속에서 다양한 문화의 전승과 변용작용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의 전승은 민족 집단들의 경계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문화적 변용은 이주노동자들이 현지 사회에 적응하며 재사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즉 “현지 사회와 상대적으로 격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 거주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집단이 자체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입각해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

조직을 형성하게 된다. 이 조직은 현지 사회에 대해 이주 민족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내부의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단 거주지 내부에 지식, 정보, 자원,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적되면 본국으로부터 이동해 들어온 새로운 이주노동자가 정착하기 쉬워진다.”⁹⁾

노동자 정체성의 이런 ‘다양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세계화 과정은 ‘글로벌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의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국가의 중심성(primacy)이 약화되면서 기업과 경영집단에서도 국민국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공간과 정체성이 확산되고 있다. ‘초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체성이 약화되어 있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미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국가 범위 내에서 진행되던 노동자 계급형성 역시 초국적 맥락에서 재평가해한다는 것이다.¹⁰⁾ 하지만 노동자들은 단순히 정치경제적으로 규정되는 사회적 존재가 아니고 민족적(ethnic)이고 문화적인 특성들을 공유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민족들 사이의 경제교류가 늘어나고 상당 정도의 통합된 글로벌 생산체제가 작동한다고 해도, 노동계급 내의 다양한 정체성들이 단일한 ‘트렌스내셔널 계급형성’으로 쉽게 전환되지 않는 것이다.¹¹⁾ 따라서 이제 기층 서민들의 정체성의 다양성과 다층성은 이제 사회과학연구의 당연한 전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9) 이종구, 2011,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담론」, 이종구 외, 『이주민의 에스니시티와 거주지역 분석』, 한국학술정보 이담복스, 26쪽.

10) Robinson, W. I. 2004. *A Theory of Global Capitalism*.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88, 99, 140.

11) 박노영, 2007, 「지구화와 계급: 트렌스내셔널 계급형성론의 성과와 한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4권, 제1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78-458쪽.

3) 현재 : '로컬'의 기록화와 노동연구 결합 모색

구로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확장된 문제의식은 2013년 이후 한국사회과학(SSK) 2단계 연구에서는 기록생산과 기록활용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산업화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역공간과 주민구성이 급격히 변화해 왔다. 지역 고유의 정체성은 점점 약화되었고, 구심력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소속감과 결속력이 떨어졌다. 매년 인제들이 유출되고 인구는 줄어들어(고령화와 공동화), 지역발전의 근본이 무너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인들이 떠난 공간에 외국인들이 '새로운 시민'이 되어 자리를 메우며 '다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시민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지역갈등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산업정책과 지역정책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자율성과 능력의 구조적 한계가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지역의 내재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인프라, 다른 표현으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을 갖는다.

현재 진행 중인 '산업변동과 로컬리티' 연구는 한국의 사회과학이 한국의 시민사회, 특히 지방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문화적 인프라 중에서 특히 기억과 기록, 공간과 장소, 역사와 집단기억, 산업과 노동, 생활세계와 재현, '다문화'와 젠더 등의 측면에 천착하고자 한다. 이것들은 무형의 정신문화적 기반이면서도 동시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드는 '아카이빙'(archiving) 작업을 통해서 물질화되고, 공동체 및 집단 아카이브의 구축을 통해서 지역 내 네트워킹이 가능해지는 실질적 인프라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로컬리티 '주체'의 형성을 포함하는데 이들을 묶어서 '로컬리티 인프라'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3. 노동아카이브 구축과 ‘로컬리티 기록화’

1) 노동아카이브의 방법론적 도약

: 노동사 내부의 ‘중층적 주변화’ 극복

2002년에서 2012년까지 성공회대 노동아카이브가 지난 10년 간 축적해 온 노동기록들은 오늘날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기록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아카이브 구축의 방법론적인 도약으로서 ‘로컬리티 기록화’론의 접목을 시도하고자 한다. 네덜란드의 기록학자 Eric Ketelaar는 아카이브가 ‘기억의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기억을 기록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공 아카이브와 연계하는 정책과 정보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¹²⁾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하나의 지역 특히 산업단지 지역은 이미 다양한 정체성이 혼합되어 있는 역동적 정체성의 공간이라는 점이었다. 국적, 인종, 지역, 계층 등이 밀집된 공간 내에 공존하고 있는 옛 구로공단 지역은 그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여기서 정체성의 문제는 비단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들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동일한 집단 안에서도 기억과 정체성의 혼란은 여전히 존재했다.

이 현상에 착안해 본다면 ‘로컬’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지역’은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종속적이고 배제된 공간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한국의 ‘로컬리티’ 개념은 원래 영국 학계에서 논의되던 방식보다 훨씬 더 권력관계 측면

12) Ketelaar, Eric. 2008. Archives as Spaces of Memor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9(1)(April 2008): pp.9-27;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학회지』 제11권 1호에서 재인용.

이 부각이 된다. 그리고 로컬리티의 내용에 대해서도 ‘변두리 지방 고유의 역사적 정체성’이라는 차원의 개념정의(향토성)가 가장 먼저 주목의 대상이 된다. 로컬리티 개념이 이런 내용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로컬리티는 보다 복합적인 개념이다.

사회과학 분석개념으로서의 로컬리티는 ‘스케일’(scale)의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¹³⁾ ‘스케일’은 ‘공간의 층위’이다. 그래서 한국의 ‘중앙부’인 서울이라는 도시도 로컬리티 차원에서 연구될 수 있으며, 한국의 중앙부에서 떨어져 있는 부산도 “부산권에서는 부산이 중심이자 중앙이고 나머지는 주변이자 지방”이라는 것이다. 결국 로컬리티에서 ‘스케일’ 차원이 갖는 ‘상대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로컬리티 연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은 늘 모순에 빠지게 된다. 분석대상을 ‘다중적 스케일’(multi-scalar) 접근을 통해 재구성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사회현상의 형성과정에서 특정 스케일(국가 또는 중앙 조직 등)이 선행적으로 우선시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스케일 간의 우발적이거나 필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로컬리티’가 역동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중시하는 관점이다.¹⁴⁾

노동아카이브의 대상인 노동과 노동자, 그리고 노동단체들은 중첩적인 의미에서 ‘로컬’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먼저 노동자들의 생활세계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로컬’이다. 이들의 주거지는 주도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안락한 삶의 공간과는 거리가 먼 공단지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체험내용은 인문사회적으로 (인지적으로) ‘로컬’이다. 이들의 경험과 삶의 의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되며 폄하된다. 노동자들은 ‘공순이’, ‘공돌이’이며 노동권은 늘 위협받는다. 자

13) 구동회, 2010, 「로컬리티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논쟁」, 『국토지리학회지』 제44권, 4호, 509-523쪽; 황진태, 2011, 「노동자 국제주의는 만병통치약인가? 로컬 공동체 노조운동의 가능성과 도전-GM대우 비정규직 노조 투쟁을 사례로」, 『로컬리티 인문학』, 제6권, 131-172쪽.

14) 황진태, 위의 글, 135쪽.

본이익과 경제성장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의 주변인들이다. 따라서 ‘노동’은 공간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모두에 있어 ‘로컬리티’를 갖는다.

바로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스케일을 통해서 ‘중층적으로 주변화된 주체들’에 대한 논의이다. 국가의 역사와 사회사가 모두 ‘승자의 역사’로 기록되어 나가는 것에 대한 반발을 의미하는 노동사 연구가 어느새 그 내부에 ‘중층적 주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역사에서도 다시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고, 사료의 선택적 활용과 관습적 해석이 반복되는 현상은 오늘날 노동아카이브와 노동기록의 생산 및 활용의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70년대 인천의 반도상사 노조와 1980년대 중반의 구로 동맹파업, 그리고 다시 인천의 대한마이크로 등이다.

2) 반도상사 민주노조의 역사와 한순임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반도상사는 인천 북구 부평동(현재 부평구) 제4 수출산업공단에 위치하고 있었다. 1969년에 재벌기업 럭키(현재의 LG)의 계열회사로서 주로 가발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반도상사의 노동자들은 1974년 2월 26일에 농성을 시작하여 3월 5일에 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계획했으나 실패한 후, 4월 25일에 다시 노조 결성을 시도하여 한순임을 지부장(한국노총 섬유노조 반도상사지부)으로 선출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사와 인천지역 노동운동사에서 반도상사의 사례는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같은 인천지역의 동일방직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동일방직 노동조합사는 인천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인정을 받아 왔다.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1972년에 여성지부장을 당선시킴으로서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1976년에는 속칭 ‘반나체 시위’ 사

건이, 1978년에는 속칭 ‘똥물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은 물론 동일방직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강한 투쟁의식을 표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노동운동가들은 동일방직 노조와 그 지도자인 이총각 지부장을 높이 평가하였고,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래, 연극, 영화, 자료집 등으로 계속 재생산되면서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에 반해 반도상사 노동조합은 이렇다 할 만 한 사건이 없었다. 노조 결성 시기도 동일방직보다 늦었고, 노조 해산 과정도 동일방직이나 YH무역처럼 ‘스펙터클’하지 않았다. 1981년 3월 13일에 럭키그룹에서 회사를 폐쇄하면서 자연히 노동조합이 해산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히려 반도상사 노조사에서는 ‘한순임 지부장 문제’가 더 많이 알려졌다. 동일방직 노동조합 지부장을 역임했던 이총각은 최근 한겨레신문에 생애사를 연재했다.¹⁵⁾ 이 글에서 이총각은 한순임을 “아주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났다”고 묘사했다. 한순임은 1973년 12월에 인천산업선교회가 주최한 ‘부평지역 여성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에 동료들과 참여하면서 급속하게 사내 동료들을 규합했다. 워낙 노동조건이 열악했던 반도상사 노동자들은 2월 설연휴에 귀향하는 한 여성 노동자가 경비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 2월 26일에 1,400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조직해 냈다. 그 후 한순임과 초기 노조 설립그룹의 노력으로 4월 15일에 섬유노조 반도상사지부가 결성이 되었다. 이는 부평 수출산업공단 내에서는 최초의 신규노조 설립이었다. 당시 수출산업공단은 국가가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했으며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이외에는 노동조

15) 2013년 5월 14일에 첫 연재가 시작되었고 이총각의 구술을 작가 박민나가 정리했다. 2013년 9월 29일까지 총 96회로 마쳤다. 반도상사와 관련된 증언은 20회차, 41회차 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기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오류가 종종 발견된다. 구술사에서는 구술자의 부정확한 증언을 그 자체로 분석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구술증언의 신뢰성을 부정해버리지는 않는다. 그런 만큼 구술증언을 활용하는 사람의 주의가 요구된다.

함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총각은 ‘그로부터 3년 뒤 한순임은 중앙정보부의 공작에 넘어가 동일방직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깊이 관여했으며, 산업선교회를 비판하는 강연과 글쓰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¹⁶⁾

또한 이총각은 1977년 3월 27일의 반도상사 2대 지부장 선거를 참관했던 경험을 증언하면서 한순임의 경쟁자인 ‘장현자의 압도적인 승리’였다고 말했다. 장현자는 산업선교회 측이 한순임과 대립적 관계가 되면서 조직적으로 2대 지부장이 되도록 지원한 후보였다. 이총각에 따르면 한순임 지부장은 중앙정보부에서 ‘산업선교회는 빨갱이다’라는 협박과 함께 엄청난 폭행을 당한 후 점점 산업선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전신)는 한순임 체제가 안정화되도록 회사를 압박하기도 하였으며, 한순임 지부장은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회사와 독재정권의 편에 서는 행동을 하다가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2대 지부장 선거에 패배했다는 증언이다. 한순임의 사례는 “역시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었고, 그는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앞잡이로 본색을 드러내며 칼을 휘둘렀다고 비난했다.¹⁷⁾

이렇게 강한 비난은 전순옥의 책에서도 이어진다. 전순옥은 한순임을 이소선과 강하게 대비시켰다. 그의 책에서 한순임은 전태일과 필자 자신의 어머니인 이소선을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로 표현하면서 “잔혹 무도한 권위주의에 대항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평가했다.¹⁸⁾ 그런 직후에 반도상사 한순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변절’과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가 섬유노조의 상근직 간부가 된

16) 이총각·박민나, 2013, 「1400명 전원이 동참한 반도상사 파업」, 20회차, 한겨레 2013년 6월 12일.

17) 이총각·박민나, 2013, 「중앙정보부의 개입과 한순임과의 악연」, 41회차, 한겨레 2013년 7월 11일.

18) 전순옥, 2004,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276, 282쪽.

것을 ‘변절에 대한 무언의 대가’로 해석하고 ‘사냥터지기가 밀렵자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도 동일방직 노조의 이총각 지부장을 ‘타깃’으로 삼아서 동일방직 앞의 문화호텔을 활동 근거지로 삼아 노조 파괴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섬유노조 간부와 결혼했다고 밝혔다.¹⁹⁾

그러나 성공회대 노동아카이브에 소장된 한순임과 다른 반도상사 관계자들의 구술자료에는 또 다른 해석이 담겨 있다. 먼저 흥미로운 것은 한순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문을 쓴 전순옥이 한순임을 인터뷰한 자료이다. 여기에서 전순옥은 자신의 영어 논문을 번역하고 있다면서 ‘한순임 지부장님은 그 당시에 제가 많은 개인적인 정보를 가질 수는 없었어요’라며, 해당 책 내용만이라도 먼저 보내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²⁰⁾ 전순옥과 한순임은 모두 ‘객관적인 역사 기술’에 대해 공감을 했고,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열려 있는 태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전순옥의 책에는 한순임의 구술증언에 대한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한순임 본인의 일관된 주장은 ‘당시 한국노총이라고 해서 그 안에 모든 간부들이 어용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회사와 상대를 하고 사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선교회보다는 섬유노조 측이 훨씬 현실적이었다는 것이다. 한순임은 자신이 중앙정보부나 한국노총, 회사 측에 의해 협박이나 회유를 당해 민주노조와 조합원을 ‘배신’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래서 1977년 3월의 지부장 선거 패배는 산업선교회의 조직적인 ‘한순임 죽이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²¹⁾

19) 앞의 책, 294-295쪽.

20) 한순임 구술, 전순옥 면담(자료번호 343-397), 9쪽.

21) 같은 자료, 25-30쪽. 한순임의 구술증언 내용 가운데에서도 부정확한 부분이 종종 등장한다. 특히 2대 지부장선거에서 조합원 1,000명 중 자신과 당선자(장현자)의 표차이가 50표에 불과했다는 대목(36쪽)은 다른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인다. 장현자의 책 『그때 우리들은』(2002, 한울사)에 따르면 당시 선거는 투표 조

조화순 목사나 최영희가 얘기한 것처럼 ‘섬유연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날강도고, 전부 못된 놈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드란 거죠. 접촉을 해 보니까. (중략)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지부장 회의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실무적인 일들이 있을 때 (섬유연맹에) 갈 때마다 완전히 도토리였어요. 전부 색안경 끼고 보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따돌림하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전부 위원장들이. ‘산업선교회’ 골수, 빨갱이 같은 애들, 이렇게 치부해버리니까. (중략) 하나의 조직의 리더이고, 그 다음에 노사교섭을 해서 회사로부터 대화의 상대로 인정받고, 뭔가 더 얻어내고 그럴려면, 회사가 싫다고 하는 ‘산업선교회’를 굳이 가면서, 맨날 거기서 지시 받아오고, 거기서 의논하고, (그 결과로) 회사가 ‘골수들하고 얘기 안 한다’ 막 선을 그어버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²²⁾

반도상사 노동조합을 깊이 연구한 김귀옥도 결국 노동조합 내부의 논쟁, 나아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한순임이 “다소 실용주의적 경향을 취하여, 필요하다면 노총이건 산선이건 모두 협력을 구하겠다는 자세”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점은 원풍모방의 박순희 부지부장에게서”나

합원 총 709명 중에서 회사 측 후보인 이우병 후보가 38표, 한순임 후보가 155표, 기권이 11표였으며 장현자 당선자는 405표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117쪽). 이 책은 반도상사 노조원들의 모임에서 추진이 되어 제작되었으나, 책 내용에 대해서 내부에서 비판이 많아서 공인된 노동조합사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22) 한순임 구술, 김귀옥 면담(자료번호 343-398), 95-86쪽. 생략된 부분에서는 동일방직 초대 지부장 출신의 주길자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주길자 역시 동일방직 노조 안에서 한국노총과 가까이 지낸다며 ‘어용’으로 비판을 받고 노조를 떠났다. 한순임은 주길자와 자신의 사례를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거의 모든 노동조합사 내에는 알려지지 않은 ‘반(反)역사’가 존재한다. 이 개념은 김원의 책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2006)에서 차용한 것이다.

같은 반도상사의 노조 간부였던 허성례를 비롯한 여러 구술자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의 “회사나 국가에 대한 타협적인 모습”이나 당시 만연했던 ‘반공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던 행태 등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후 과제로 남겨두었다.²³⁾

이 사례는 ‘민주 대 반민주(어용)’라는 날카로운 이분법으로는 당시 노동세계의 다층적 스케일을 재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선교회와 이총각 지부장을 따르던 조합원 중에서도 상당수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운동사에서 정사(正史)로 인정받는 이야기는 특정 그룹의 견해이고, 그에 대한 면밀한 학술적 검토는 시도되지 못해 왔다. 이는 전형적인 기록생산과 활용의 딜레마이다. 기록생산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연구자는 기록생산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과 기억을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으며,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반(反) 역사’에 대해서 깊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

3) 기록 생산과 활용의 괴리 :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사례

노동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전문 연구자가 노동사를 재구성하고 그 증언들을 따로 묶어서 증언집으로 출간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기록의 생산과 활용 사이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사 속에는 분명히 내적인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은 운동사에서 ‘승리’를 거둔 측에 의해 ‘선택된 기억’이 중심이 되어 반복적으로 재생산

23) 김귀옥, 2006, 「1960-70년대 의류제조업 여성노동자들의 문화건설과 문화의 성격과 한계」, 이종구 외,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171-173쪽.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민주노조운동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1985년 서울 구로공단에서 발생한 ‘구로동맹파업’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기억의 경합은 중요한 사례이다. 1985년을 전후로 한 시기는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참여자들(구 노동운동가들)과 1980년대 이후의 민주노조운동가들(신진 세력)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운동 ‘판’에 등장한 신진 세력의 조직력과 이론적 능력은 구 노동운동가들과는 비교될 수 없이 강했고 이들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실질적인 ‘지도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변곡점에 위치한 사건이 바로 ‘구로동맹파업’이었다.

유경순은 오랜 기간 구로동맹파업을 연구하였고 2007년에 구로동맹파업동지회 및 구로동맹파업20주년기념사업회와 함께 백서 『아름다운 연대: 들불처럼 타오른 1985년 구로동맹파업』(메이데이)를 발간하였다. 동시에 9명의 구술증언과 에세이를 담은 자료집 『같은 시대, 다른 이야기: 구로동맹파업의 주역들, 삶을 말하다』(메이데이)도 함께 발간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록의 생산물인 구술자료집의 내용과 기록을 활용한 백서의 내용 사이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간격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²⁴⁾

먼저 김현옥(당시 선일섬유 노조 위원장)은 직접 작성한 에세이 속에서 구로동맹파업이 “엄청난 사건처럼 평가되면서 정치투쟁이다 뭐다 하지만, (중략) 과대하게 투쟁 성격과 의미를 확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하면서 구로동맹파업을 다룬 책인 『선봉에 서서』가 사실과 너무 달라서 ‘영터리 책’이라고 비판했다(44쪽). 또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동맹파업을 대학생들 중심으로 다루는 것을 보면서 ‘동맹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네’라며 분노가 일었음을 기술하였다. 윤혜련(당시 가리봉전자 노동조합 사무장)의

24) 김준, 앞의 글에서도 구로동맹파업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출동과 특히 유경순이 쓴 백서와 구술자료집 내용 사이의 괴리가 지적되고 있다.

구술증언 속에서도 급진적이었던 학생출신 노동운동가들과의 괴리감이 표출이 되고 있다. 그는 “혁명을 하자는 거냐, 운동을 하자는 거냐”는 질문을 학생 노동운동가에게 던졌는데 그가 ‘혁명’이 좋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노동자 출신들은 사실 그거(혁명-인용자 주)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든 활동 속에서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학생 노동운동가는 “자꾸 과도하게 모든 것을 싸움으로 끌어가고, 단체협약 싸움할 때도 그리고 임금인상 때도” 자신과 의견이 달랐다고 했다. 하지만 ‘배운 사람이니까 맞겠지’하며 따랐다는 것이다. 김미성(당시 효성물산 노동조합 홍보부장)의 증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 조합원들이 동맹파업에 참여한 것은 ‘몇몇 의식있는 사람들’과는 달랐다.

사실 노동조합 1년 해서 무슨 정치의식이 생기고, 무슨 장외투쟁을 하고, 그런 건 상상도 못 할 일이죠. 사업장 안에서 (중략)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 이제 노동조합이 ‘우리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막 싹터오던 상태라, 다른 노조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조합원들과 집행부가 잘 결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는 노조가 뭐 하자고 하면 무조건 다 했어요.²⁵⁾

이렇게 다양하게 노동운동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제시되는 구술자료집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백서에는 다양한 의견들은 누락되어 있다. 백서는 대체로 내적 갈등 없는 각 노조들의 활동을 재구성한 후에 결론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노동자 정치투쟁’으로서 당시 반독재 민주화투쟁에서 노동운동이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478-479쪽).

이러한 ‘주변화’ 현상은 지역적 차원에서도 진행되었다. 즉, 1985년도

25) 김미성, 2007, 「노동운동이 정당하다는 건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유경순 편, 『같은 시대, 다른 이야기: 구로동맹파업의 주역들, 삶을 말하다』, 메이데이, 254쪽.

에는 구로동맹파업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해 6월 30일에 구로동맹 파업의 참여 노조인 효성물산 조합원 36명이 신민당사 내에서 농성을 벌이다 자진 해산을 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지어진 후, 7월 8일 오전 8시 20분경에 71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 집무실로 뛰어 들어가 일주일 간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인천 부평의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구로동맹파업의 참여 노동조합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고, 경인지역 노동운동가들을 통해서 연계되어 있었다. 1984년 4월 17일에 처음 노동조합을 결성한 대한마이크로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인정받기 위해 1년 이상 노력했으나, 결국 회사 측의 압박으로 인해 ‘노총 점거 농성’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구로동맹파업은 노동사에 늘 언급되는 반면, 인천의 대한마이크로 사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중층적 주변화’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문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과 결부된 ‘지방’이라는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된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특정 개인, 집단, 사건 등에 대해서 주변성(marginality)을 부여하거나 또는 하위 범주화(sub-categorization)하는 ‘의미틀’ 작업(framing)을 정당화하는 집단 정체성과 문화를 ‘로컬리티의 양상’라고 부를 수 있다.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다시 개별 노동조합 수준(union scale)에서도 또 다른 로컬리티의 양상들이 복잡하게 드러나면서, 로컬리티의 중층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참여형 노동아카이브의 구축 시도 : 대한마이크로 노조의 사례

대한마이크로의 경영자였던 최만립은 자신의 스포츠 외교에 대한

자서전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생각의 나무, 2010)를 출간했다. 그는 1970년에 반도체회사인 '대한마이크로전자'를 설립했고, 1980년에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명예총무로 활동하면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유치에 공을 세웠다. 2002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부위원장과 특별고문을 역임할 정도로 스포츠계에 애정이 컸다. 전자산업과 스포츠 외교 분야에서 활약한 최만립은 몇 해 전에 정치적 문제가 되었던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는 인천의 부평 한국수출산업공단(4공단) 내에서는 유력한 인사였다.

그러나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의 역사는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서 거의 잊혀졌다. 1984년, 1987년, 1994년에 걸쳐 세 번이나 '민주노조'를 결성했던 대한마이크로 조합원들의 이야기는 인천지역에서조차 흘러간 역사일 뿐이다. 심지어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에는 대한마이크로 노조 투쟁이 '실패한 투쟁'이라고 평가하는 대목이 여과 없이 적혀 있다.²⁶⁾ 이 책에는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에 대해 약 5쪽 정도의 정보가 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마이크로노조 투쟁의 성과는 그것이 실패한 싸움이지만, 그 당시 인천지역 여성노동자의 싸움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는 데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당시 대한마이크로 노조원들은 지역 노동운동가들의 이러한 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고, 스스로 나서서 자신들의 역사를 '체대로' 평가하게 위해 '노동조합사 자료집 편집위원회'를 구성했다.²⁷⁾

26) 이옥지, 2001,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1』, 한울아카데미, 498쪽.

27)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은 1980년대 중반에 활동한 여성노조로서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보다 평균 연령이 낮은 '후배' 노동자들이었다. 동시에 1980년대 후반에 활동한 민주노조들보다는 약간 연배가 높은 조합원들이었는데, 시기적으로도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의미틀(frame)과 1980년대의 급진적 의미틀 모두를 경험한 '중간 층위'의 행위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로컬리티의 중층성에는

1) 집단구술기록 생산과 재현의 딜레마

처음에는 일반적인 노동자 구술기록 생산과정에 따라서 집단인터뷰와 개별인터뷰를 계획하고 진행하기 시작했으나, 1970년대 인천 부평의 반도체사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리더십’의 위기가 대한마이크로 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반도체사의 노조 지부장이었던 한순임 사례와 유사하게 대한마이크로 노조의 박순복 위원장도 일부 집행부 간부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고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매우 큰 상처를 받은 상태로 살아오고 있었다. (이 상처는 너무 커서 어느 집단인터뷰 때에는 연구자가 잠시 회의실 밖으로 쫓겨 나가야 했다. 연구자에게 모임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기 싫어서였다.)

1970년대의 산업선교회의 역할을 한 단체는 1980년대에는 지역에서 새롭게 성장해 나가던 급진적인 노동운동단체였다. 1985년 당시에는 아직 조직들이 작게 나뉘어져 개별적으로 성장해 나가던 시기였지만 3월 10일 근로자의 날에 지역에서 1,500여 명이 가두시위를 전개했을 만큼 조직화가 진행되어 있었다. 이들 중에서 대우자동차의 전회식과 학술노동자 안재환 등이 대한마이크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던 지역 노동운동가였다. 그 중에서 전회식의 영향력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데, 바로 그는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을 결성부터 주도했던 실질적인

‘시간’ 범주가 포함된 ‘시공간’으로서의 행위공간 스케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마이크로 노동자들의 시공간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주의미틀(main frame) 사이에서 이중적으로 주변화되었으며, 이는 구로동맹파업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상방된 해석과 연결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노동사는 그들의 시공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대한마이크로 노조의 활동을 ‘실패한 투쟁’으로 평가한 사람은 노회찬의 부인 김지선이다. 지식인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애정을 담은 평가라고 해도 지식인들의 평가 내용은 노동자들의 체험내용과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역사가 주로 지식인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리더인 조현숙(사무장 겸 총무부장)의 연인이었고 후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1) 곽순복 위원장의 상처와 내부 갈등

전희식은 1986년 ‘인천 5·3항쟁’에서 이름을 날릴 정도로 투쟁력이 강하고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텁던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의 리더그룹 중 한 사람이었다. 강경하고 정치적인 노동운동의 방향성이 조현숙을 통해서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내로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위원장을 역임하던 곽순복 역시 노동운동에 진지하게 임하는 운동가였다. 그는 원래 수녀가 되고 싶었다. 부평 산곡동성당에 다니면서 네 시간도 못 자면서 대입시험 준비도 했다. 그러나 야근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현실과 희망 사이에서 고민하던 곽순복 위원장은 성당의 ‘인간개발’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대한마이크로 동료인 조현숙(이후 사무장 겸 총무부장 역임)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시작하면서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1984년 4월 17일에 ‘민주노조’를 결성했다.

두 사람 사이는 오래 가지 않았다. 노조의 운영에 대해 의견대립이 심해져서 집행부 회의 때에 간부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심해졌다. 마침내 가장 강도가 센 1985년 노총 위원장실 점거투쟁에 대해 곽순복 위원장은 찬성하지 않게 되었고 두 사람은 충돌했다. 곽 위원장은 보다 온건하고 안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원했다. 당시 대우자동차 임금인상투쟁, 구로동맹파업 등 경인지역 민주노조들은 더 강력한 투쟁을 지향하고 있었다. 지역 노동운동가들에게 온건한 전략을 추구하는 지도자는 환영받지 못했다. 노조 사무장이었던 조현숙은 자신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곽순복 위원장과 갈등을 빚었고, 그 내용 중에는 ‘어용’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었다. 곽 위원장은 자신의 의

견이 관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총 위원장실 점거투쟁에 참여하였고, 농성 후 실형을 살았다. 후에 그가 출소해서 한 노동운동가에게 던진 한 마디는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 노동, 철학, 철학의 기본 개념인가? 철학의 기초이론! 철학의 기초이론하고, 경제학 기초이론하고 두 책을 같이 공부를 했어. 공부한 다음에, 노동법 공부를 했어. 그때 전희식이 한 거야. 전희식이 지도를 했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조현숙을 위원장을 내정하려고 했는데, 조현숙이가 과거에 전력이 지오세(J.O.C)회원 이었던 것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이미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키자' 그래서 (중략) 내가 노조위원장을 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어! (중략) 그런데 조현숙을 아끼기 위해서 나를 내세운 거야. 그래서 내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갔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중략) 우리가 설립 추진한 사람은 그 다섯, 여섯 명이었어. 그 안에서의 얘기야. (중략) 그래서 나중에 전희식을 만날 때, 우리 노조 끝나고 나서 우리 감방(징역) 다 살고 전희식이 보자고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전희식한테 대들었지. “네 작품을 보는 심정이 어떠냐!”고.²⁸⁾

곽순복 위원장의 상처는 가장 큰 이슈에 속하지만, 약 25명 정도 되는 조합원들의 모임안에는 더 많은 균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집단인터뷰는 늘 뜨거운 논쟁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더욱 놀

28) 대한마이크로 집단인터뷰 중 곽순복 증언. 왜 자신이 노조위원장이 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구술자는 마치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큼이나 격한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곽순복 위원장도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으나 약간 온건한 입장이었다. 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무장은 보다 노련한 조직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위원장은 갈등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라운 것은 이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25년 넘게 만나왔지만, 서로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이는 같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지만 구체적인 '행위공간'이 달라서 생겨난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체험내용들을 그 후 25년이 넘도록 서로에게 말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은 의문이었다.

(2) 25년 이상 혼자만 간직하던 공포 : 김현옥 사례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노조원들의 행위 시공간은 역동적이다. 우선 시간과 사건에 따라 나누면 첫째로 노조 설립기와 노조 운영기, 그리고 외부 교육 등으로 구분이 된다(1984년 1월~1985년 6월) 둘째로 점거농성이 진행되는 기간에 한국노총 위원장실 점거 그룹, 외곽 지원 그룹으로 나뉜다(1984년 7월). 셋째로 점거농성이 끝난 후에는 부평경찰서 연행 그룹, 구속자 그룹, 그리고 강제 사직자 그룹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의 자취방을 '마이크로의 집'으로 부르면서 복직운동을 펼친 그룹과 회사 내에 끝까지 남았던 조합원들 그룹으로 구분된다. 이 행위 공간들에 따라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조합의 역사가 존재하게 된다. 조합의 역사는 하나가 아닌 것이다. 노총 위원장실 점거농성에 참여한 사람중에서 부평경찰서에 남았던 사람과, 경찰들이 회사 측에 강제 인도하여 회사 내 기숙사에 갇혀서 강제사직서를 쓰도록 위협받아야 했던 조합원의 경험은 크게 달랐다.

김현옥이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을 떠나 부평경찰서로 이송된 것이 마침 제헌절인 7월 17일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받은 조합원들은 회사로 옮겨져 강제로 감금되었다. 술을 먹은 남자 구사대원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폐허가 된 기숙사 건물 방방마다 여성 조합원들을 두 세 사람씩 밀어 넣고 밖에서 못질을 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불러내어 공장 기계실 등 음침한 곳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사직서를 받아내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다. 노동교육을

받을 당시 알게 된 구사대원들의 성폭행 사례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영영 살아 나갈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몰려 왔다. 옆에 누가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들의 살기어린 눈매에 눌러 사직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다. 제현절이라 아무도 없는 공장에서 사직서를 쓴 조합원들이 하나 둘 씩 풀려나왔다. 사직서를 쓴 조합원들은 공장 밖 조합원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 밖에는 없었다. 그대로 자취방에 가서 한 여름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몇 날 몇 일을 지냈다. 한동안 제 정신이 아니었다.²⁹⁾

김현옥은 충격을 받고 조합원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공포로 지냈으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에는 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노조 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현옥은 20년 넘게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그와 같이 다른 조합원들도 단지 노동조합 활동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자세히 말하려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솔직한 증언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무엇보다 왜 이런 ‘내적 저항’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노동조합의 역사도 열리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지역 사회운동의 역사도, 지역의 역사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참여의 주체 형성 : 대한마이크로 노조사 편집위원회

인천지역의 노동사를 재구성하다보면 거의 모든 조직에서 다양한 갈등과 기억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온 연구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29) 2009년 7월 9일의 집단 인터뷰 과정에서 처음 나온 자신의 이야기이다. 이 글에서는 문어체로 다듬어서 정리하였다.

살아온 동료들이며 자기 자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아카이브’가 지역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구축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단 인천지역의 문제만도 아니다.

성공회대 노동아카이브의 새로운 시도는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수립될 수 없었다.³⁰⁾ 대한마이크로 노조의 노동아카이브 구축이 자체적인 편집위원회 활동을 통해 진행될 수 있던 계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에 박정희 등 강제 사직자 21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을 하여 모두 명예회복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³¹⁾ 이 법률에 의거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회원들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내부 회의를 거쳐서 보조금의 일부를 모아 자체 노동아카이브 및 자료집을 편찬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 2004년에 곽순복(당시 노조 위원장) 등 4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이 되어 명예회복이 되고 일부는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대한마이크로 노조사 편집위원회는 김덕순, 김경숙, 김덕순, 박순이, 이희례 등 평균 5명이 참여하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2013년까지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회의와 인터뷰를 진행해 왔다. 인터뷰 대상자는 모임에 참석하는 20여 명의 ‘동지’들이다. 2014년부터는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웹 아카이브’의 형태로 노동조

30) SSK연구단과 노동사연구소는 현재 진행 중인 대한마이크로의 사례를 확장하여, 서울지역의 1970~90년대 여성노조 주역들에 대한 새로운 참여형 노동아카이브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장남수, 황선금, 이숙희, 김연자, 신순애, 강석금, 김명희 등인데, 그 중 ‘70년대 민주노조동지회’(70민노회)의 회원만 약 50명의 규모이다. 또한 인천 부평의 대우자동차(현재 GM) 노동조합사를 정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이를 성공회대 내 민주자료관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진행하여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에 있다.

31) 인천신문,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자 23년 만에 명예회복 나서」, 2007.7.18.

합사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작업에는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와 민주자료관, 그리고 SSK 연구단이 함께 결합하였다.³²⁾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한마이크로 노조사 아카이빙과 연구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로컬리티 기록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하기엔 충분한 사례일 것이다.

대한마이크로 노조사 편집위원회가 재구성해가고 있는 노동운동사는 기존의 다른 어떤 노동사와도 다른 새로운 역사의 ‘결’이다. 즉 역사상에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역사적으로 망각되어 왔던 ‘로컬리티의 일 양상’이 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례는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사례와 달리 개별성과 개체성을 강조하는 미시사가 아니라, 미시사와 거시사를 연결하여 기존의 ‘단편’ 로컬리티에 도전하고 새로 ‘열린’ 로컬리티를 함께 구성해 나가기를 제안하는 ‘생성 로컬리티’의 모색이자 ‘비판적 로컬리티’의 실험이다.³³⁾

이 사례는 노조 수준(union-scale)에서도 개인들과 소그룹별로 서로 다른 행위공간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같은 노조에 소속되어 같은 사건을 경험한 줄 알고 있던 몇몇 옛 간부들(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은 구술증언 과정에서 자신들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체험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놀랐다. 그러나 이 ‘불협화음’을 하나의 노조사로 봉합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지만,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를

32) ‘오픈 소스’인 OMEKA를 활용할 것이다;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학회지』 제11권 1호; 현문수, 2014,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 방안: 부산 영도 지역 조선 노동기록을 중심으로」, 제5회 SSK 산업변동과 로컬리티 연구단 워크숍 발표문.

33) 황진태, 2011, 위의 논문, 136쪽; 김용규, 2008,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32호, 31-69쪽.

재구성하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다. 비용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5. 결론

영국에는 3천여 개 이상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있다고 추산되며 ‘커뮤니티 아카이브와 유산 그룹’(CAHG)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하던 지방사 그룹들이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에 선구자 역할을 했다.³⁴⁾ 한국은 새로운 아카이브 구축의 출발점에서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한국의 맥락에 맞는 기록 생산과 활용의 모델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아카이브는 저마다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자역사 한내,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마산창원노동자료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울산 북구청 노동역사관 등은 모두가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조건을 반영하여 성립되었고 저마다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의 노동아카이브 역시 그렇다. 성공회대 노동아카이브는 1990년 11월에 설립된 전태일노동자료연구실의 수집 자료를 기증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2002년부터 지난 12년간 195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다양한 노동사 연구가 이뤄지면서 추가적으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가 대량으로 수집되었다. 그러나 성공회대 노동아카이브는 전문 아키비스트가 아닌 사회과학 연구자들에 의해 운영이 되었고,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진행하면서 노동아카이브는 부수적인 사업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

34) 설문원, 2010, 위의 논문, 26-27쪽.

기 위해서 성공회대학교에서는 전문 아키비스트가 관여하고 있는 민주자료관을 통해서 통합적인 기록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을 통합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서비스한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2010년 이후 진행된 지역 산업공단 연구를 통해서 보았을 때, 한국의 노동자들과 노동자 생활세계는 매우 다양한 정체성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그 어디보다도 산업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의 노동사를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그 내부에서도 이미 ‘하나의 역사, 하나의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나, 1980년대 민주노조운동이나, 옛 구로공단 지역이나 인천 또는 울산도 모두 기억과 역사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의 세계’는 자본과의 관계에서만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과 노동 사이에서도 서로를 배척하고 주변화시키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체성 문제와도 직결되었기에, 노동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와 더불어 다루기 위한 도구로 ‘로컬리티’(locality) 개념을 도입하였다.

학계와 지역에서 공공연히 논의되면서도 정작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민감한 이슈들을 이제는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인천 부평의 반도상사 민주노조의 역사와, ‘변절자’, ‘노조파괴자’로 낙인이 찍힌 1대 지부장 한순임의 이야기를 검토하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의 노동운동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혔던 구로동맹파업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하나는 구로동맹파업에 대한 ‘비지식인’ 노동운동가들의 기술증언과, 그 기록을 바탕으로 백서를 기술한 연구자의 시선을 비교했다. 또한 1985년 당시 인천에서 서울로 상경투쟁을 벌였던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의 한국노총 위원장실 점거 투쟁이 왜 구로동맹파업과 달리 거의 잊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 다양한 기억들이 선택되고, 기록되고, 활용되고, 또 망각되는 정체성의 한 단면들, 그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중층적 주변화로서의 ‘로컬리티의 양상들’이었다. 노동아카이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카이브는 개별 기록들의 집합체로 형성이 되는데, 그 자체로 집단기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카이브의 역사는 기억의 역사인 동시에 망각과 상실의 역사이기도 하기에, 보존할 기록을 선별하는 행위는 ‘남길 것’과 ‘남기지 않을 것’을 선택, 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아카이브는 역사적으로 통치자들에게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³⁵⁾

노동아카이브는 ‘기록의 생산 방식’과 ‘기록의 활용 방식’ 모두를 성찰해야 하는데, 이 글은 기록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로컬리티 기록화’론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참여형 아카이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안타깝게도 아직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은 진행 중에 있기에 구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이 작업이 우선 대한미이크로 노동조합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에서부터, 1970년대 민주노조동지회와의 공동작업이 기획되어 있고, 나아가 인천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사 작업으로도 연결될 예정인 만큼, 그 전개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단순히 ‘참여형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록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대안적 기록화전략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컬리티 기록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결합시켰는데, 이는 ‘비판적 로컬리티’로서 ‘로컬의 주체적 언표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중심(부)의 지배논리를 해체하고자 하는 주변화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적 확장을 시도하자면, 이는 ‘자신의 삶의 주체적 원리 위에 중심과 초월의 논리를 해체하면서 다른 로컬문화와의 수평적 연대를 모색하는 트랜스로컬(translocal) 전략’인 것이다.³⁶⁾ 다중 스케일 접근법

35) 설문원, 2011, 위의 글, 211쪽.

(multi-scale approach)은 로컬리티를 사회현상이 벌어지는 행위공간과 인지공간을 중심으로 주제와 맥락의 복잡한 양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참여형 노동아카이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참여의 주체들이 '로컬리티 기록화'에 대한 교육과 합의가 부재하다. 이는 '시민 아키비스트 교육'을 통해서 완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구축해 나가야 할 핵심 기제인 '디지털 아카이브'가 잘 디자인되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어려운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반응이다. 기존의 노동아카이브나 책으로 출간된 노동조합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자칫 참여형 노동아카이브도 지역과 소통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참여형 아카이브가 활성화되고 유의미한 '로컬리티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활용 전략'도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6) 김용규, 2008, 위의 글, 53쪽.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Labor Archive and Its New Development Strategy : An Attempt to Build Participatory Archive of the Institute of Labor History in SKHU

Lee, Chongkoo · Lee, Jaeseong

In 2001 a large amount of labor record have been donated from Jeontaeil Labor Archive-Institute to SungKongHoe University(SKHU). Institute of Labor History in SKHU was established in the wake of the installation of the labor archive. Development of oral archive raised the awareness of the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the use and production of labor record. Interviewees of oral testimony expressed dissatisfaction and the role of the researchers was not sufficiently exhibited.

Examining the main cases of Korea union movement history, we can find contradictions between the use and production of labor record clearly. Interval of interpretation and memory was too big between the parties of 'democratic' union movement in the 1970s. While among the parties who took part in Guro Alliance Strike of 1985, there is a group that remains in the "winner" in history on the one hand, but "loser" on the other without any reasonable criterion. Active intervention of the record users(researchers) is very limited. Among citizens or workers how will be resolved such "struggle of memory" in due process can not be seen.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labor archive is not rooted in the region.

In this paper, I present a methodological alternatives for the production

and use of record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participatory labor archive. Further, the reconstituted contents of the “documenting locality” strategy by complementing the theoretical part of the method of participation. The study of local and locality requires a “scale” dimension that will make up the identity recognition space, a memory and identity, a social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dimension of the physical space. Alternative “documenting locality” strateg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solve the problems that occur between the production and use of the recording in labor archive.

Key words : labor archive, participatory archive, documenting locality, multi-scalar approach, locality infra, KMI Trade Union